

폐간 학술지를 통해 본 인문학 학술 커뮤니케이션 동향

Scholarly Communication Trends in the Human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Ceased Journals

윤정원(JungWon Yoon)¹ | ¹(제1저자)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jyoona@jbnu.ac.kr

정은경(EunKyung Chung)² | ²(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echung@ewha.ac.kr

목 차

1. 서론
2. 관련연구
3. 연구방법
4. 결과분석
5. 논의 및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를 분석함으로써 인문학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lrich's Web에서 수집한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 454종을 대상으로 주제, 출판사 유형, 창간 및 폐간 연도, 존속연수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폐간 학술지는 2009-2019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평균 존속연수는 약 20.8년, 중앙값은 14년으로 나타나 다수의 학술지가 15년 이내에 소멸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판사 유형으로 보면 대학 및 학술기관 발행 학술지의 폐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존속연수 2년 이하의 단명 학술지는 대부분 2000년대 이후 창간된 대학 발행 학술지로 확인되어 디지털 전환기 신생 학술지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문학 학술지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학문 구조, 출판 모델의 현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인문학 학술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키워드 : 인문학, 학술지, 폐간 학술지, 학술 커뮤니케이션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cholarly communication trends in humanities by analyzing 454 ceased journals indexed in Ulrich's Web. Bibliometric analysis of subject areas, publishers, founding and cessation years, and lifespan shows closures peaked in 2009–2019, with a median lifespan of 14 years. Most ceased titles were university-published, including many short-lived journals founded after 2000. The findings highlight structural vulnerabilities and inform sustainability policy discussions.

※ Keywords : Humanities, Scholarly Journals, Ceased Scholarly Journals, Scholarly Communication

-
- 본 과제(결과물)는 2025년도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전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글로벌대학 결과입니다.(2025-RISE-13-JBU)
 - 논문접수 : 2026.02.25. • 최초심사 : 2026.03.14. • 심사완료 : 2026.03.25.

1. 서론

학술지는 지식 생산과 유통, 학문적 담론의 형성 및 재구성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인문학 분야의 학술지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에 비해 문화, 사회, 언어의 다양성과 해당 특정 지역의 논의를 강하게 반영하는 특성이 있으며, 지역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제와 담론의 방향성을 함께 진화시켜 왔다(윤정원, 2024).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학 학술지는 단순한 연구 결과 발표의 수단을 넘어, 시대적, 사회적 지식 요구와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역할을 한다.

학술지의 창간과 폐간은 학문 분야의 주제 및 연구 담론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대 흐름에 따른 연구 주제의 관심도와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창간된 학술지는 새로운 학문적 흐름, 사회적 요구, 학제 간 융합 등 새로운 지식 수요에 대응하며, 반대로 폐간된 학술지는 연구자 수 감소, 학문적 관심의 이탈, 또는 주제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지원의 약화 등으로 인해 특정 주제 영역이 축소되거나 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창간과 폐간은 단순한 학술지의 양적 변화가 아니라, 특정 지식 주제의 생성과 쇠퇴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인문학 내 연구 관심사의 이동과 담론의 재편 과정을 가늠할 수 있다.

인문학 학술지의 소멸은 학술 생태계 및 출판 모델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디지털 전환, 연구 평가 체계의 정량화, 학술 출판의 상업화, 그리고 오픈액세스 (Open Access) 출판 모델의 확산은 학술지의 운영 및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디지털 전환은 학술지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인쇄 기반의 전통적인 출판 모델을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으로 재편하였다. 연구 평가 체계의 정량화는 논문의 생산성, 인용 기반의 영향력, 학술지 영향력 지수 (Journal Impact Factor: JIF)와 같은 수치적 기준에 따라 학문적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을 낳았으며, 특히 학술지 영향력 지수가 높은 국제 학술지에서 선호하는 특정 유형의 연구 주제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였다. 학술 출판의 상업화는 대형 상업 출판사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하고, 소규모 학술지와 지역 학술지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연구자 중심 (scholar-led)이 아닌 시장 중심 (market-led)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낳고 있다(Ma, 2023a; 2023b).

본 연구는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를 분석하여, 인문학 지식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Ulrich's Periodicals Directory (이하 Ulrich's Web)에 수록된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 데이터를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맥락에서 인문학 폐간 학술지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학술지 출판 정책 및 지원 등 인문학 분야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이해하고 제도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는 세부 주제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는 시대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 인문학 분야 단명 학술지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2. 관련연구

국제적으로 학술지의 창간 동기는 학문 분야의 발전과 지식 수요에 밀접하게 연관된다. 학술지 창간 요인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학술적 수요 충족, 학회나 기관의 지원 여부, 새로운 연구 영역의 부상, 학제 간 융합 연구의 등장, 특정 국가나 지역의 학술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Björk, 2017; Eve, 2014; Johnson, Watkinson, & Mabe, 2018). 인문학 학술지 창간도 학문 주제의 변화, 연구자의 문제의식, 연구비 정책, 출판 생태계 등 다양한 학술커뮤니케이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문학 학술지 창간의 예를 보면, 2016년 창간된 History of Humanities는 고고학, 언어학, 역사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으며, 2015년 출간한 Open Library of Humanities는 다이아몬드 OA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상업 출판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다언어적, 포용적, 연구자 중심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지 폐간 역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학문 주제의 변화와 쇠퇴 이외에도, 학술정책과 출판환경에 따른 낮은 투고율, 편집 자원의 부족, 재정적 한계 등은 학술지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2024년 Wiley가 19종의 학술지 폐간을 발표한 사례는 연구윤리 문제와 더불어 학술지 운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형적 사례로 지적된다(Alonso, 2024). Bergstrom, Rieger, Schonfeld(2024)는 인문학 학술지가 소규모 학회나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되는 비중이 높으며 독자층과 잠재적 투고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특성은 학술지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대형 상업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인문학 분야 학술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다. Jamali, Wakeling, Abbasi(2022)의 연구에 따르면 2011~2021년 사이 폐간된 140종의 호주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 존속연수는 약 19.7년이었으며, 75%가 사회과학 및 인문예술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학술지 운영 재정 부족이 가장 큰 폐간 이유로 지목되었고, 그다음으로 양질의 투고 논문 부족과 학술지 소유기관의 지원 부족 등이 보고되었다. Jamali, Wakeling(2025)은 많은 학술지가 소수 편집인의 헌신적 봉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핵심 인력의 이탈 시 곧바로 폐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학술지의 생성과 소멸에는 연구 평가 제도와 관련된 학술 정책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계량지표 중심의 연구 평가 문화는 학술지 존속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한다. 국가 연구 평가 기준이 국제 색인 등재 여부와 학술지 영향력에 집중될 경우, 여기에 등재되지 못한 지역 학술지는 우수 논문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학술지존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판 혹은 퇴출(publish or perish)”이라는 연구 문화 속에서 연구자들은 임용이나 승진을 위해 영향력 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신생 학술지나 지역 학술지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내 최고의 연구는 지역 학술지에 실리지 않는다는 편집인의 현실 인식으로 보고되었다(Jamali & Wakeling, 2025). 특히, 지역적 특성과 언어적 다양성이 중요한 인문학 분야 학술지의 경우, 지역의 담론이 지역 학술지에 출판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술지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Yoon et al., 2024).

또한 학술지의 창간과 소멸은 발행 주체와 출판모형의 영향을 받는다. 상업 출판사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학술지를 통폐합하거나 폐간을 신속히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회나 대학 발행 학술지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McKercher,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학술출판사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기반의 골드 OA 학술지를 적극적으로 창간하거나 기존 저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Jamali, Wakeling, Abbasi(2022)는 폐간된 호주 학술지 중 54%가 대학 등 교육기관 소속, 34%는 학회 등 비영리단체 소속으로 상업 출판사에 속한 사례는 드물다고 보고하였고, 편집인들이 지적인 학술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은 자원봉사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구조라고 하였다. 편집·투고 시스템, 마케팅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형 상업 출판사의 독점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독립 학술지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시장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Ma, 2023a, 2023b).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학술 커뮤니티 기반의 출판을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다이아몬드 OA와 같은 학술 커뮤니티 기반의 출판 모델 확산이 눈에 띈다. Bosman 등(2021)에 의하면 전 세계 약 29,000여 종의 다이아몬드 OA 학술지 중에서 60%가 인문사회 분야에 속한다. 이러한 다이아몬드 OA 학술지는 구독료나 게재료 없이 연구자들과 독자들에게 개방된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재정 및 운영상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학회나 대학과 같은 비영리 발행 주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 안정성과 인적 자원의 확보가 곧 존속 여부를 좌우한다. Jamali, Wakeling, Abbasi(2022)은 최근 20년간 폐간된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인문사회 분야에 속하며 평균 존속 기간은 16년에 불과하다고 보고하면서, 주요 요인으로 재정적 불안정, 투고 논문 감소와 질 저하 등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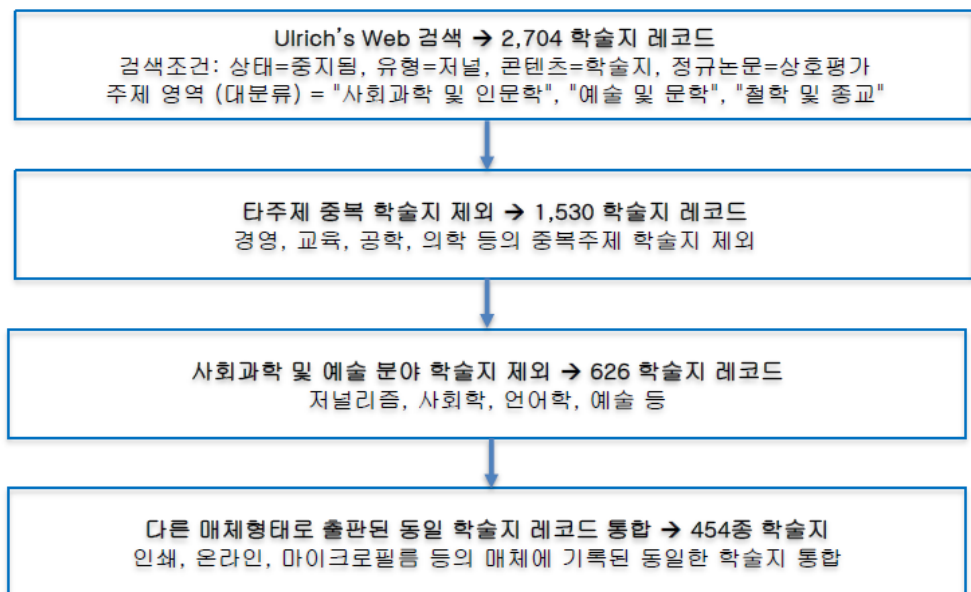
학술 기록의 보존 측면에서도 폐간 학술지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Laakso, Matthias, Jahn(2021)은 2000~2019년 사이 웹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오픈액세스 학술지 174종을 확인하였는데, 상당수가 체계적인 아카이빙 없이 운영되다가 폐간과 함께 콘텐츠 접근도 끊긴 사례였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술지가 폐간되더라도 아카이빙 체계가 부실할 경우 지식 자체가 소실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Jamali, Wakeling, Abbasi(2022)도 조사 대상 폐간 학술지의 약 20%는 폐간 당시 아카이빙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많은 경우 산발적으로 웹사이트나 웹아카이브에 일부 콘텐츠만 남아 체계적 보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폐간은 학술 콘텐츠 보존의 문제를 낳는다. 디지털 시대의 학술지 콘텐츠의 장기 보존을 위한 Keepers Registry와 같은 프로젝트가 존재하나, 실제로 47%의 폐간된

학술지는 어떠한 보존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언어학, 지역학, 고고학 등 로컬 지식 생산이 중요한 분야일수록 폐간 비율이 높고 장기 보존을 위한 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인문학 내 특정 주제의 지속성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Bergstrom, Rieger, & Schonfeld, 2024).

3. 연구방법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2025년 8월 21일 Ulrich's Web을 통해 인문학 분야의 폐간 학술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Ulrich's Web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로, 100,000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40만 종 이상의 정기간행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115,000종 이상의 폐간 정기간행물까지 포함하고 있어, 학술지 출판의 역사적 흐름을 추적하기에 적합하다. 학술지의 발행 이력, 주제 코드 (Subject Codes), 출판사, 국가, 언어, 출판사, 발행 주기, 색인 여부, 오픈액세스 여부 등 다양한 속성 정보를 제공하므로, 인문학 학술지의 특성과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데이터 수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Ulrich's Web의 고급검색 (Advanced Search) 기능을 통해, 데이터 검색 조건을 '상태-증지됨', '간행물 유형-저널', '콘텐츠 유형-학회지/학술지', '정규논문-상호평가논문', '주제영역 (주제 대분류)-사회과학 및 인문학; 예술 및 문학; 철학 및 종교'로 설정하여, 총 2,704종의 학술지 레코드를 검색하였다. 둘째, 순수 인문학 학술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Ulrich's Web의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타주제 (경영 및 경제, 교육, 기술 및 공학, 물리학, 민족 연구, 성 및 생활 양식, 생물과학 및 농업, 수학, 스포츠, 취미 및 레크레이션, 의학 및 보건, 정부, 법률 및 행정, 지구, 우주 및 환경 과학, 참조 및 참고문헌, 화학 등)에 중복으로 속한 학술지는 제외하여 1,530종의 학술지 레코드를 추출하였다. 셋째, 고급 검색기능에서 제공하는 주제 영역(주제 대분류)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 '예술 및 문학'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사회과학과 예술 분야 학술지를 제외하기 위하여 Ulrich's Web 데이터셋에 포함된 주제 코드(Subject Codes) 항목을 사용하였다. KCI의 학술지 분류 체계를 참조하여 사회과학과 예술 분야에 속하는 세부 주제를 규정하였다. 그 결과 저널리즘, 사회학, 사회과학, 고고학, 언어학, 인류학, 건축학, 예술, 무용, 영화, 박물관과 미술관, 음악, 사진, 음향, 극장으로 부여된 주제코드는 사회과학 또는 예술 주제영역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앞서, 타주제 영역이 함께 부여된 학술지를 제외한 것과 동일하게, 주제코드 중 사회과학이나 예술 분야의 주제코드가 부여된 학술지 또한 제외하여 순수 인문학 분야 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총 626종의 학술지 레코드가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Ulrich's Web에서는 동일한 학술지이지만 매체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인쇄물, 온라인, 마이크로필름 등)를 각각 다른 레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동일한 학술지이지만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술지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454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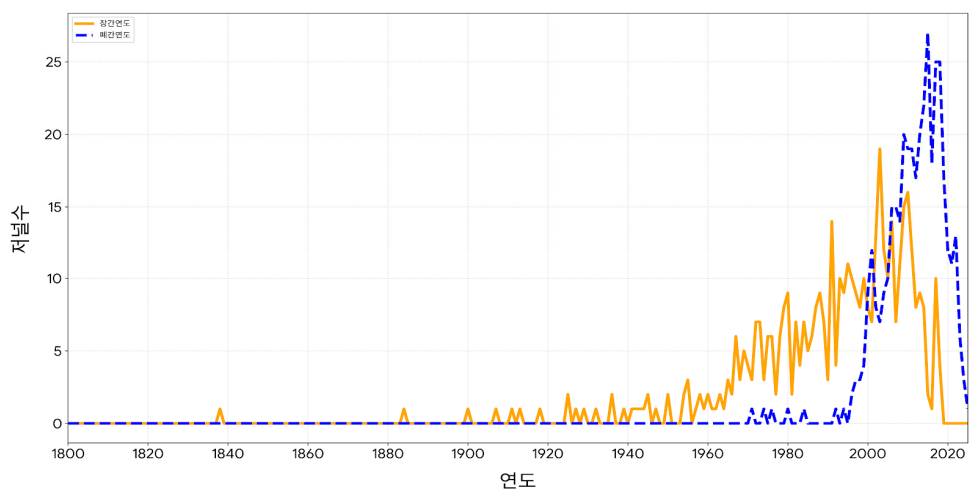


〈그림 1〉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 데이터 수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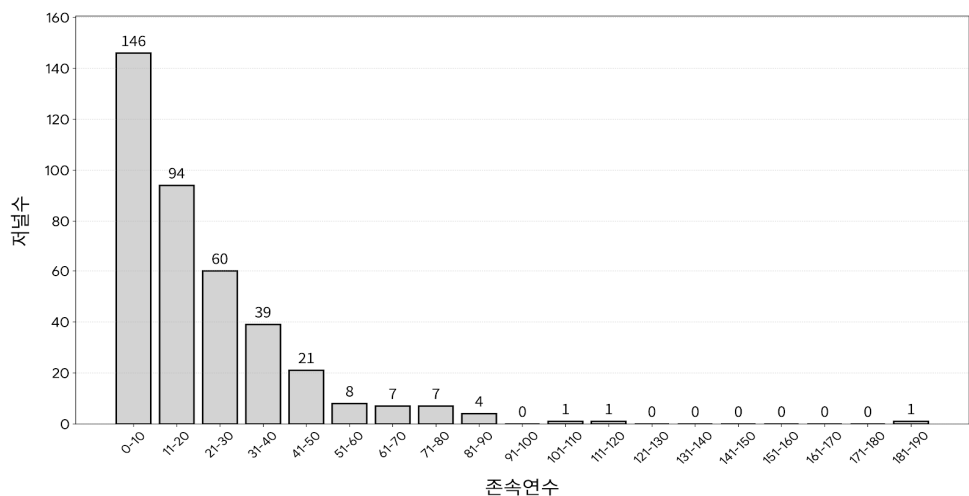
4. 결과분석

4.1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 개관

〈그림 2〉는 인문학 분야에서 폐간된 학술지 454종의 창간연도와 폐간연도를 보여준다. 데이터셋에 포함된 폐간 학술지의 폐간연도는 1971년부터 2025년까지 나타난다. 폐간 학술지의 창간연도를 보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걸쳐 창간된 학술지의 숫자가 많지만, 동시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폐간되는 학술지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폐간된 학술지 중, 가장 오래된 학술지는 1838년에 창간되었고 가장 최근 학술지는 2018년에 창간되었다. 〈그림 3〉은 이러한 폐간 학술지의 존속연수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학술지의 평균 존속연수는 약 20.8년, 중앙값은 14년으로 나타났으며, 1/3 이상의 학술지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단 존속 기간은 0년 (창간과 같은 해에 폐간)도 있으나 일부 학술지는 세기를 넘어 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Tijdschrift voor Theologie (1838-2020, 182년),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1907-2018, 111년), Gereformeerd Theologisch Tijdschrift (1900-2003, 1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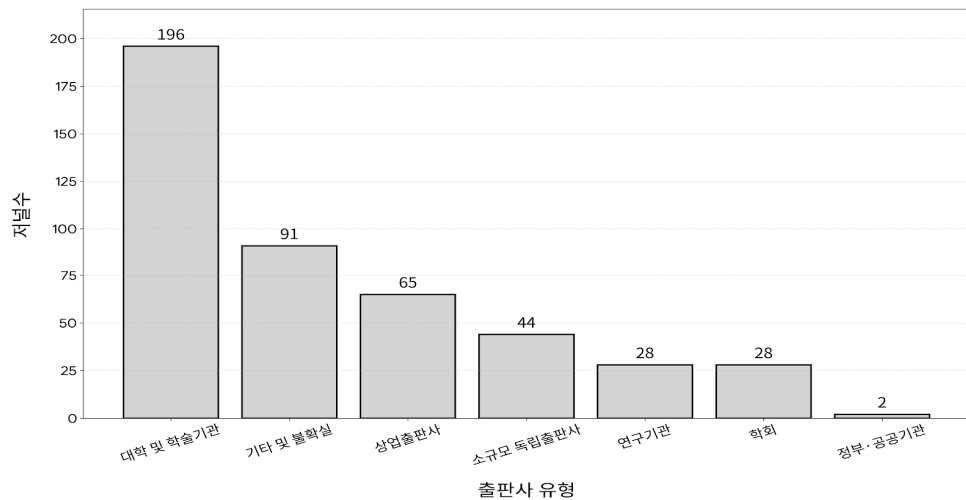


〈그림 2〉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의 창간연도와 폐간연도



〈그림 3〉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의 존속연수

〈그림 4〉는 인문학 분야에서 폐간된 학술지 454종의 출판사 유형 분포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폐간 학술지의 다수는 대학 및 학술기관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6종, 43%). 그다음으로는 발행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기타 유형(91종), 상업 출판사(65종), 소규모 독립출판사(44종), 연구기관(28종), 학회(28종), 정부·공공기관(2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의 상위 출판사 유형 분포

4.2 인문학 폐간 학술지의 주제별 분석

〈표 1〉은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 454종을 주제별로 나누어 창간연도, 폐간연도, 그리고 존속연수의 통계를 보여준다. 주제별 분포를 보면, 역사(26.4%)와 문학(26.9%)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철학(18.3%), 종교(15.4%), 고전(2.9%)이 뒤를 이었다. 창간연도 중간값을 비교해 보면, 분야별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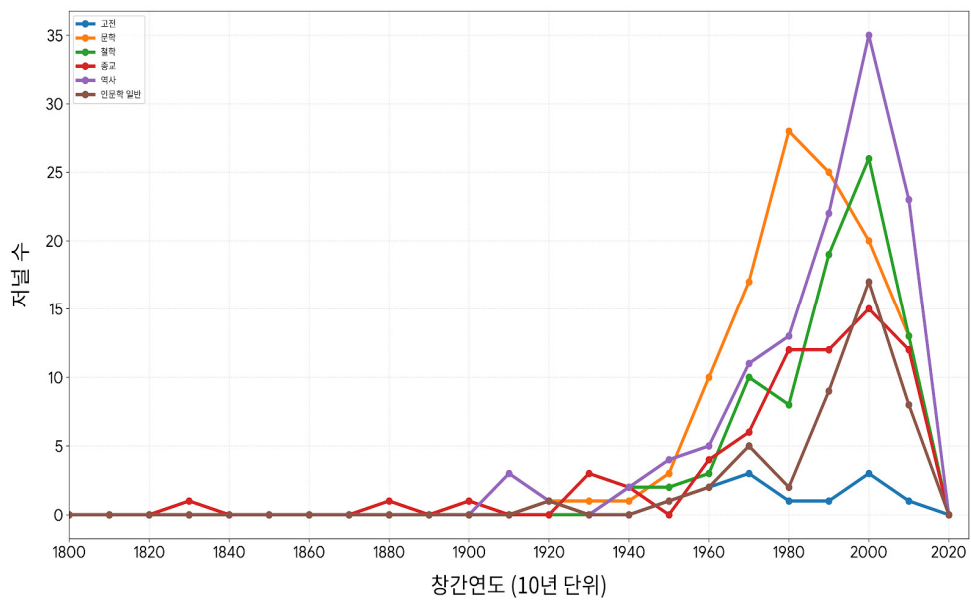
〈표 1〉 학술지 주제분야별 창간연도 폐간연도 비교

주제 분야	학술지 수	%	창간연도 중간값 (최초 창간, 최근 창간)	폐간연도 중간값 (최초 폐간, 최근 폐간)	존속연수 중간값 (최단, 최장, 평균)	장기존속 학술지 예
고전 (Classics)	13	2.9	1978 (1925, 2018)	2014 (1976, 2023)	32 (3, 82, 32.2)	The Classical Bulletin (1925-2007), U.S., The Classical Bulletin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1958-2009), U.S., Dept. of Classical Studies
문학 (Literature)	122	26.9	1989 (1907, 2018)	2011 (1980, 2022)	21 (1, 111, 23.7)	Archiv fuer Reformationsgeschichte. Literaturbericht (1907-2018), Germany, Guetersloher Verlagshaus Poetische (1936-2018), Italy, Stem Mucchi Editore
철학 (Philosophy)	83	18.3	1999 (1944, 2017)	2014 (1992, 2022)	14 (0, 74, 18.7)	Stromata (1944-2018), Argentina, Asociacion Civil Facultades Loyola Iyyun (1945-2016), Israel,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S.H. Bergma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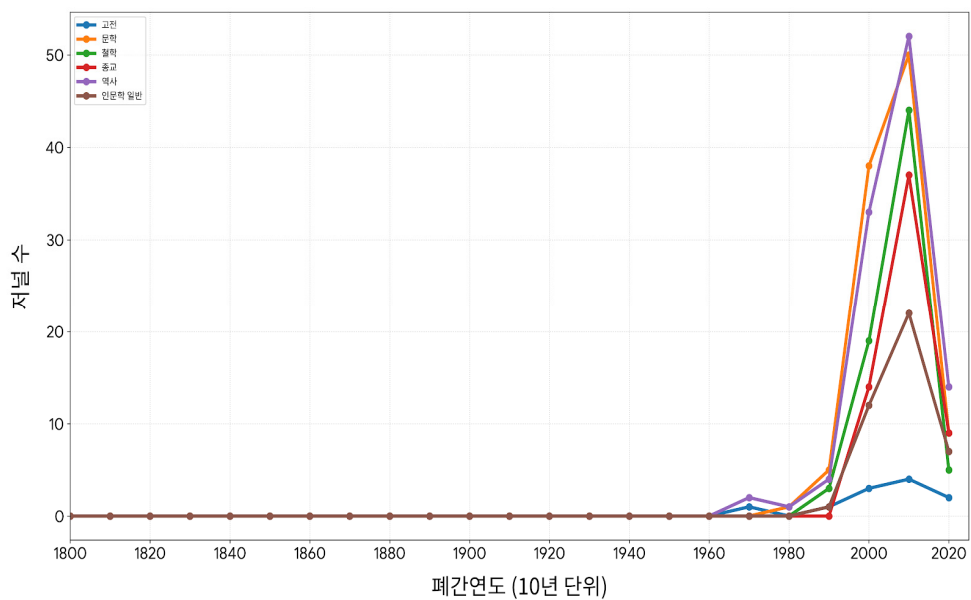
주제 분야	학술지 수	%	창간연도 중간값 (최초 창간, 최근 창간)	폐간연도 중간값 (최초 폐간, 최근 폐간)	존속연수 중간값 (최단, 최장, 평균)	장기존속 학술지 예
종교 (Religion)	70	15.4	1995 (1838, 2017)	2014 (2001, 2023)	19 (0, 182, 25.2)	Tijdschrift voor Theologie (1838-2020), Netherlands, Tijdschrift voor Theologie Gereformeerd Theologisch Tijdschrift (1900-2003), Netherlands, Uitgeversmaatschappij J.H. Kok B.V.
역사 (History)	120	26.4	1998 (1911, 2018)	2013 (1971, 2025)	12 (0, 84, 17.4)	Mid-America (Chicago) (1918-2002), U.S.,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Dept. of History The Russian Review (1941-2022), U.S., Wiley-Blackwell Publishing, Inc.
인문학 일반 (Humanities: Comprehensive works)	46	10.1	2002 (1925, 2014)	2014 (1996, 2024)	11 (1, 71, 16.7)	Turkiyat Mecmuasi (1925-1996), Turkey, Istanbul University, Institute of Turkish Research South (Chapel Hill) (1968-2018), U.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합계	454	100.0	1995 (1838, 2018)	2013 (1971, 2025)	14 (0, 182, 20.8)	

예를 들면, 고전분야는 1978년이지만, 인문학 일반은 2002년으로 나타났다. <그림 5>를 통해 주제별 창간연도의 특성을 보더라도, 역사와 종교 등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학술지가 창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간연도의 중간값은 문학 분야는 2011년이고 다른 분야는 모두 2013년과 2014년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대 초반에 인문학 분야 전반에서 학술지의 폐간이 빠르게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그림 6> 참조). 존속연수의 중앙값과 평균을 보면, 고전, 문학, 종교 분야가 상대적으로 길게 이어진 반면, 철학, 역사, 인문학 일반은 짧게 나타났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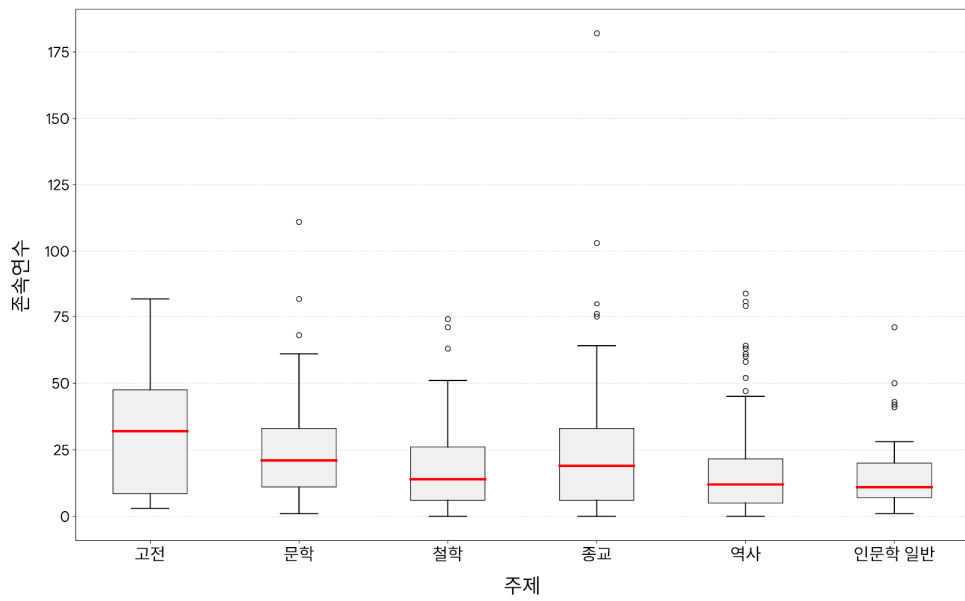
<그림 8>은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 454종을 주제별로 구분한 후, 각 주제 영역에서의 출판사 유형 분포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인문학 전 분야에서 대학 및 학술기관 발행 학술지가 폐간 학술지 중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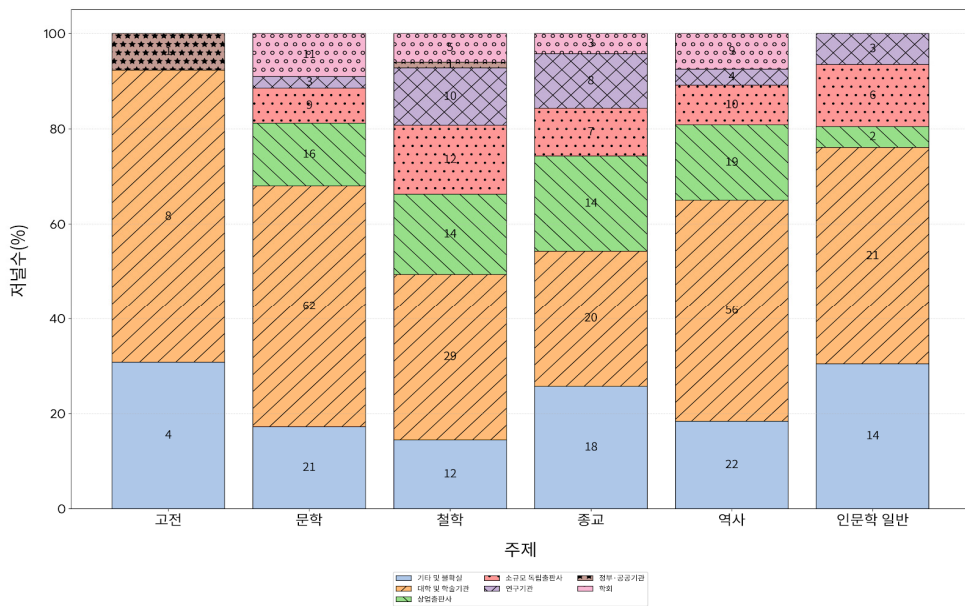
〈그림 5〉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의 주제별 창간연도 분포



〈그림 6〉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의 주제별 폐간연도 분포



〈그림 7〉 인문학분야 폐간 학술지의 주제별 존속연수



〈그림 8〉 인문학분야 폐간 학술지의 주제별 출판사 유형 분포

4.3 시기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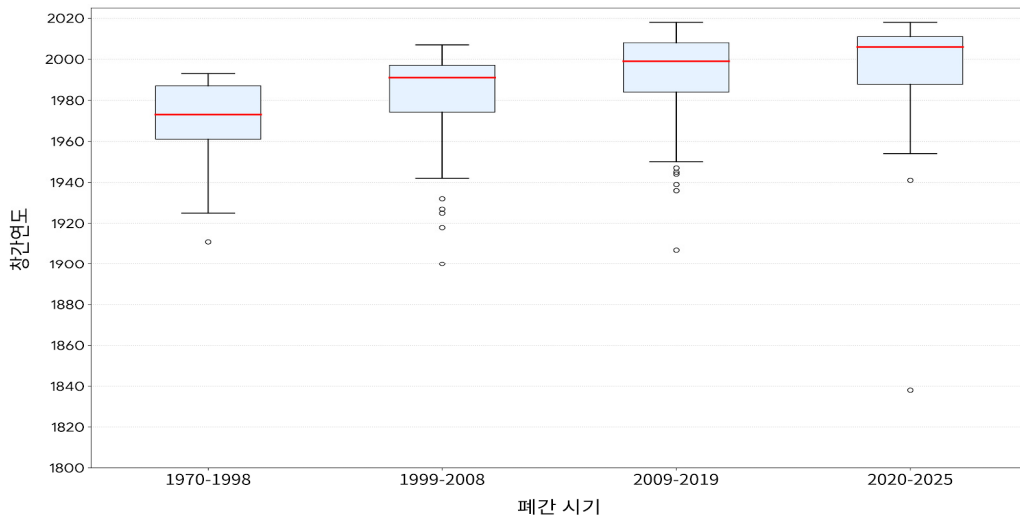
인문학 폐간 학술지의 특성을 폐간연도를 기준으로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2>에서 보여주는 폐간 학술지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1999년부터 폐간 학술지가 서서히 증가하여, 2009년부터는 폐간 학술지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는 폐간 학술지의 증가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폐간 학술지를 폐간연도를 기준으로 1970-1998년, 1999-2008년, 2009-2019년, 2020-2025년의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표 2>는 시기별 폐간학술지 특성을 폐간학술지 종수, 존속연도, 창간연도 등을 통해 비교하고, <그림 9>는 네 시기별로 폐간된 학술지들의 창간연도 분포를, <그림 10>은 폐간연도 기준 네 시기별로 폐간된 학술지들의 존속연수 분포를 보여준다. 첫째, 1970-1998년(1기)은 폐간 학술지가 15종(연평균 0.54종)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폐간이 적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폐간된 학술지들은 창간연도가 주로 197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사이에 분포 (중앙값: 1973년)하였다. 존속연도 중앙값은 약 14년이고 존속연수의 변동 폭은 비교적 좁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장수 학술지는 적고, 대부분이 중간 정도 기간을 유지한 학술지가 폐간되었다. 둘째, 1999-2008년(2기)은 폐간 학술지가 103종으로 크게 증가한 시기로, 연평균 약 10종이 폐간되었다. 이 시기에 폐간된 학술지들은 주로 1990년대에 창간된 학술지이다. 존속연도 중앙값은 13.5년으로 앞 시기와 비슷하지만, 변동 폭이 넓어 최단 0년부터 최장 103년까지 분포한다. 이 중 존속연도 2년 이하의 최단기 존속 학술지는 12종으로, 존속연도 0년 학술지 7종, 존속연도 1년 학술지 2종, 존속연도 2년 학술지 3종이 포함되었다. 이 시기의 장기 존속 학술지 Gereformeerd Theologisch Tijdschrift (네덜란드)는 1900년에 창간되어 103년간 발행 후 폐간되었다. 셋째, 2009-2019년(3기)은 전체 폐간 학술지의 절반 이상(229종)이 집중된 시기로, 연평균 약 20.8종이 폐간되었는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창간된 학술지가 대거 폐간되었다. 존속연도 중앙값이 15년으로 앞 시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변동 범위는 0년에서 103로 더 넓어졌다. 최단기 존속 학술지는 21종으로, 존속연도 0년 학술지 1종, 존속연도 1년 학술지 11종, 존속연도 2년 학술지 9종으로 나타났다. 1907년에 창간되었던 Archiv fuer Reformationsgeschichte. Literaturbericht (독일)이 111년간 이어오다 이 시기에 폐간되었다. 넷째, 2020-2025년(4기)은 연평균 약 7.7종이 폐간되어, 앞 시기에 비해서는 학술지 폐간의 증가세가 누그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존속연도 중앙값이 14.5년으로 앞 시기와 비슷하지만, 분포 범위가 넓게 나타나 (3년-182년), 전통적 장수 학술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최근에 창간된 학술지가 함께 폐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1838년에 창간되어 182년간 발행된 학술지 Tijdschrift voor Theologie (네덜란드)의 폐간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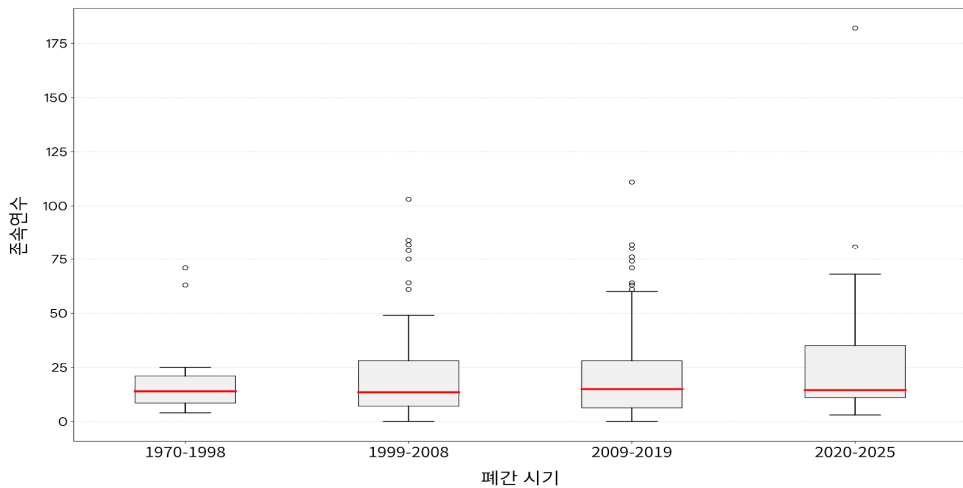
〈표 2〉 시기별 폐간 학술지 특성

폐간연수 기준 시기구분*	폐간 학술지수	연평균 폐간 학술지 수	폐간연 중간값	창간연 중간값 (최초 창간, 최근 창간)	존속 연수 중간값 (최단, 최장, 평균)	장기존속 학술지 예
1970- 1998	15	0.54	1996	1973 (1911, 1993)	14.0 (4, 71, 20.7)	Turkiyat Mecmuasi (1925-1996), Turkey, Istanbul Universitesi, Institute of Turkish Researches
1999- 2008	103	10.3	2005	1991 (1900, 2007)	13.5 (0,103, 20.3)	Gereformeerd Theologisch Tijdschrift (1900-2003), Netherlands, Uitgeversmaatschappij J.H. Kok B.V.
2009- 2019	229	20.82	2014	1999 (1907, 2018)	15.0 (0,111, 20.0)	Archiv fuer Reformationsgeschichte. Literaturbericht (1907-2018), Germany, Guetersloher Verlagshaus
2020- 2025	46	7.67	2021	2006 (1838, 2018)	14.5 (3,182, 25.9)	Tijdschrift voor Theologie (1838-2020), Netherlands, Tijdschrift voor Theologie

*폐간연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61종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9〉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의 시기별 창간연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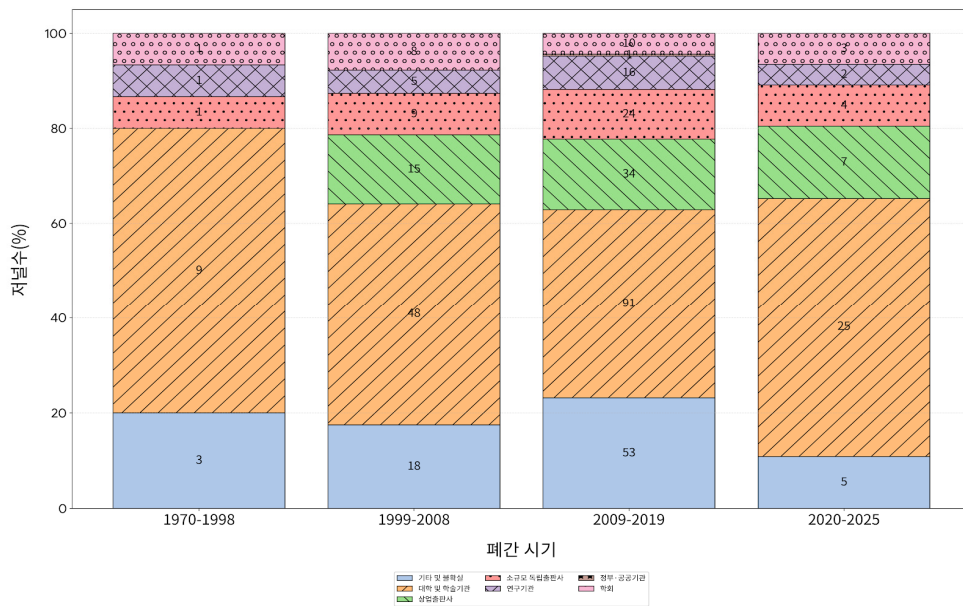
〈그림 10〉 인문학분야 폐간 학술지의 시기별 존속연수 분포

〈표 3〉은 인문학 폐간 학술지를 주제별로 나누어 시기별 분포를 보여준다. 1970-1998년에는 폐간 학술지 15종 중에서, 역사 분야 학술지가 절반 가까이 (46.7%) 차지하였고, 문학과 고전 분야의 폐간 학술지가 그 뒤를 이었다. 폐간 학술지가 증가한 1999-2008년에는 문학(32.0%)과 역사(28.2%) 분야의 폐간 학술지가 많았으며,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가 크게 증가한 2009-2019년에는 문학(24.9%), 역사(24.5%), 철학(21.0%), 종교(17.0%), 인문학 일반 등 모든 주제분야에서 폐간 학술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철학과 종교 분야에서 폐간 학술지가 다른 시기보다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2020-2025년에는 폐간 학술지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역사(30.4%), 종교(19.6%), 문학(19.6%) 등의 주제에서 폐간 학술지 비중이 높았다.

〈표 3〉 시기별 폐간 학술지 주제 분석

주제 분야	1970-1998		1999-2008		2009-2019		2020-2025	
	학술지 수	%	학술지 수	%	학술지 수	%	학술지 수	%
고전	2	13.3	1	1.0	6	2.6	2	4.3
문학	4	26.7	33	32.0	57	24.9	9	19.6
철학	1	6.7	17	16.5	48	21.0	5	10.9
종교	0	0.0	12	11.7	39	17.0	9	19.6
역사	7	46.7	29	28.2	56	24.5	14	30.4
인문학 일반	1	6.7	11	10.7	23	10.0	7	15.2
합계	15	100	103	100	229	100	46	100

〈그림 11〉은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의 시기별 출판사 유형 분포를 보여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점에서 대학 및 학술기관 발행 학술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9-2008년과 2009-2019년에는 폐간 학술지 수의 급증과 함께 대학 발행 학술지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상업 출판사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인문학 분야 폐간 현상이 주로 비영리·기관 기반 출판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9-2019년에는 모든 출판사 유형에서 폐간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폭은 대학 및 학술기관 발행 학술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그림 11〉 인문학분야 폐간 학술지의 시기별 출판사 분포

4.4 단명 학술지 특성

〈표 4〉는 2년 이하 존속된 학술지 33종 (0년 존속 학술지 8종, 1년 존속 학술지 13종, 2년 존속 학술지 12종)을 보여준다. 단명 학술지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폐간연도가 확실히 포함된 393종의 폐간 학술지 중, 약 10%에 해당하는 2년 이하 존속 학술지를 단명 학술지로 지정하였다. 단명 학술지는 Review of Theological Literature (1999-2001)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 이후에 창간된 학술지들이었다. 단명 학술지의 출판사 유형을 보면, 전체 33종 중 28종이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Domuni Press와 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Ltd.와 같은 비영리 기관 출판사, 그리고 T & T Clark Ltd., Brill, Veruscript와 같은 상업 출판사에서 발행된 저널이었다. 단명 학술지의 주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역사(33.3%), 종교(24.2%), 문학(21.2%), 철학(18.2%), 인문학 일반(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폐간 학술지가

문학(26.9%), 역사(26.4%), 철학(18.3%), 종교(15.4%), 인문학 일반(10.1%), 고전(2.9%) 순으로 분포한 것과 비교해 보면(〈표 2〉 참조), 이는 역사와 종교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단명 학술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 2년 이하 존속 학술지 (33종)

존속 연도	창간 연도	폐간연도	주제 분야	출판국	출판사 유형	학술지명
0	2001	2001	역사	스페인	대학	<i>Revista Complutense de Historia de America</i>
0	2002	2002	역사	스페인	대학	<i>Cuadernos de Historia Contemporanea</i>
0	2002	2002	역사	스페인	대학	<i>En la Espana Medieval</i>
0	2003	2003	종교	스페인	대학	<i>'llu</i>
0	2004	2004	종교	브라질	대학	<i>Sacrilegens</i>
0	2004	2004	철학	스페인	대학	<i>Logos</i>
0	2007	2007	역사	캐나다	대학	<i>Journal of Historical Biography</i>
0	2017	2017	역사	스페인	대학	<i>Tiempo Devorado</i>
1	2000	2001	철학	스페인	대학	<i>Revista de Filosofia</i>
1	2004	2005	종교	스웨덴	대학	<i>Chakra</i>
1	2009	2010	역사	미국	대학	<i>Warring States Papers</i>
1	2011	2012	종교	튀르키예	대학	<i>Erciyes Universitesi Ilahiyat Fakultesi Dergisi</i>
1	2013	2014	문학	캐나다	대학	<i>Paper Mill Press</i>
1	2014	2015	인문학 일반	페루	대학	<i>Vid@rte</i>
1	2014	2015	종교	프랑스	비영리기관	<i>Telos</i>
1	2015	2016	종교	미국	대학	<i>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ent Journal</i>
1	2017	2018	문학	미국	대학	<i>Essay</i>
1	2017	2018	문학	미국	대학	<i>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obin Hood Studies. Bulletin</i>
1	2017	2018	철학	영국	비영리기관	<i>Journal of Consumer Ethics</i>
1	2018	2019	역사	미국	대학	<i>The Burkhardt Review</i>
1	2018	2019	문학	이탈리아	대학	<i>Criando</i>
2	1999	2001	종교	영국	상업	<i>Review of Theological Literature</i>
2	2004	2006	역사	브라질	대학	<i>Revista Plurais - Virtual</i>
2	2005	2007	문학	브라질	대학	<i>Revista de Literatura, Historia e Memoria</i>
2	2007	2009	철학	호주	대학	<i>Eye of the Heart</i>
2	2008	2010	철학	독일	대학	<i>Kritikon</i>
2	2010	2012	문학	뉴질랜드	대학	<i>Experimental Poetics and Aesthetics</i>
2	2010	2012	종교	카타르	대학	<i>Contemporary Islamic Studies</i>
2	2010	2012	문학	캐나다	대학	<i>At The Edge</i>
2	2013	2015	철학	브라질	대학	<i>Revista Negativo</i>
2	2014	2016	역사	미국	대학	<i>Journal of Retracing Africa</i>
2	2017	2019	역사	네덜란드	상업	<i>Brill Research Perspectives in Southeast European History</i>
2	2017	2019	역사	영국	상업	<i>Cambridge Journal of Eurasian Studies</i>

5. 논의 및 결론

인문학 학술지의 생성과 소멸은 학문적 수요, 제도적 조건, 출판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반영한다. 본 연구는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를 분석함으로써 인문학 지식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학술지 출판 정책 및 지원 등 인문학 분야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제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 오픈액세스 운동으로 인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출간, 그리고 학문의 세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학문의 영역에서 창간하는 학술지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Willinsky, 2006, Suber, 2012). 그러나 창간하는 학술지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학술지의 수가 늘어났지만, Ulrich's Web에서 추출한 454종의 인문학 분야 폐간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인문학 폐간 학술지의 평균 존속 연한은 약 20년 남짓에 불과하였다. 폐간된 학술지 출판사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이나 학술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amali, Wakeling, Abbasi(2022)가 밝힌 바와 같이, 호주 학술지 중 54%가 대학 등 교육기관 소속, 34%는 학회 등 비영리단체 소속이며, 상업 출판사에 속한 비중은 낮다고 제시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상업 출판사와 달리 비영리 조직의 출판 관행은 편집진의 자원봉사, 비정기적이며 불확실한 재정적 후원금, 불안정한 출판 시스템 인프라 등에 의존한다. 비영리 조직의 학술지는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학술지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운영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드러난 단명 학술지 현상은 학술 출판 환경의 구조적 전환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업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은 비영리·지역 기반 학술지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인문학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Bergstrom, Rieger, & Schonfeld, 2024; Alonso, 2024). 이는 전자출판 기술이 학술지 창간을 용이하게 만든 동시에, 경쟁 심화와 취약한 지원 구조로 인해 단명 저널을 양산하는 양면성을 보여준다(Laakso & Björk, 2012; Solomon & Björk, 2012). 이는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인문학의 특정 학문 분야의 고사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술지의 고전, 문학, 철학, 종교, 역사, 인문학 일반의 주제 영역별로 살펴보면, 역사와 문학 분야가 전체의 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창간연도에는 차이를 보이나, 대부분의 폐간 학술지의 폐간연도는 2010년대 초반이다. 2010년대는 2000년 초에 시작된 전자저널과 오픈액세스 운동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다양한 대학, 학회, 연구기관이 자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신생 학술지를 창간했으나, 상당수는 안정적 투고자 기반과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단기간 내 폐간된 것으로 볼 수 있다(Waltham, 2010). 또한 폐간 학술지의 출판사 유형을 살펴보면, 상업 출판사의 비중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OA 운동이 지식의 개방성을 확대했으나, 출판비용 부담 구조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양극화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Laakso & Multas, 2023). 특히 다이아몬드 OA(Diamond OA)와 같은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 모델은 인문학 분야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재정 구조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Jamali, Wakeling, & Abbasi, 2022; Dufour, Pontille, & Torny, 2023).

셋째, 학술지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학술지 창간과 폐간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존속기간이 0~2년으로 짧게 존속한 학술지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창간된 사례들이었다. 학술지의 출현과 소멸은 단순한 수적 증감이 아니라, 지식 생산과 확산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다.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시도된 학술지 창간은 학문적 관심의 전환과 새로운 연구 주제를 실험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폐간 저널의 증가는 학문 공동체의 수용 부족, 시장성과 제도적 지원의 결여가 결합한 결과였다. 이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여전히 상업적·제도적 조건에 의해 크게 제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학술지의 생성과 소멸은 학문 지형의 전환을 가시화하는 지표이자, 학문적 다양성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담론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인문학 학술지의 생애주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조명하였다. 연구 결과, 인문학 학술지의 지속가능성은 개별 발행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구조적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북미와 유럽 중심의 편향된 출판 지형에서 벗어나 비서구 지역 학술지가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와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폐간 이후 방치되는 학술 자산의 소실을 막기 위해 디지털 보존 인프라와 국제 레지스트리 기반의 아카이빙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학술 커뮤니티는 인문학적 성과가 단절 없이 전승될 수 있는 건강한 학술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Ulrich's Web 데이터에 의존했기 때문에 개별 학술지의 편집 정책, 학문 공동체의 특성, 운영자의 전략적 선택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인문학 분야 학술지 창간과 폐간 현황을 통한 학술 생태계를 규명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연구가 부족하여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녔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접근(편집자·연구자 인터뷰, 사례 연구)을 병행함으로써, 인문학 학술지의 생성과 소멸을 보다 총체적이고 맥락적으로 해석하여 우리나라 인문학 분야에서의 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인문학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당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윤정원 (2024). 글로벌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학술지 국제화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41(3), 359-380. <https://doi.org/10.3743/KOSIM.2024.41.3.359>
- Alonso, J. (2024. 5. 15.). Wiley to shutter 19 journals. Inside Higher Ed News.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quick-takes/2024/05/15/wiley-shutter-19-journals>
- Bergstrom, T., Rieger, O. Y. & Schonfeld, R. C. (2024). The Second Digital Transformation of Scholarly Publishing: Strategic Context and Shared Infrastructure. Ithaka S+R Report. <https://doi.org/10.18665/sr.320210>
- Björk, B. C. (2017).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in transition: From restricted access to open access. *Electronic Markets*, 27(2), 101-109. <https://doi.org/10.1007/s12525-017-0249-2>
- Bosman, J., Frantsvåg, J. E., Kramer, B., Langlais, P.-C. & Proudman, V. (2021). OA Diamond Journals Study. Part 1: Findings. Science Europe. <https://doi.org/10.5281/zenodo.4558704>
- Dufour, Q., Pontille, D. & Torny, D. (2023). Supporting diamond open access journals. Interest and feasibility of direct funding mechanisms. *Nordic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4(2), 35-55. <https://doi.org/10.7146/njlis.v4i2.140344>
- Eve, M. P. (2014). Open access and the humanities: Contexts, controversies and the fu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1316161012>
- Jamali, H. R. & Wakeling, S. (2025). Roles, challenges, and sustainability of Australian journals: A survey of editors. *Open Information Science*, 9(1), <https://doi.org/10.1515/opis-2025-0013>
- Jamali, H. R., Wakeling, S. & Abbasi, A. (2022). Why do journals discontinue? A study of Australian ceased journals. *Learned Publishing*, 35(2), 219-228. <https://doi.org/10.1002/leap.1448>
- Johnson, R., Watkinson, A. & Mabe, M. (2018). The STM report: An overview of scientific and scholarly publishing (5th e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and Medical Publishers. https://www.ur.edu.pl/files/user_directory/951/Dokumenty/Johnson%20R.%2C%20Mabe%20M.%2C%20Watkinson%20A.%202018%20The%20STM%20Report.%20An%20overview%20of%20scientific%20and%20scholarly%20publishing.pdf
- Laakso, M. & Björk, B. C. (2012). Anatomy of open access publishing: a study of longitudinal development and internal structure. *BMC Medicine*, 10(1), 124. <https://doi.org/10.1186/1741-7015-10-124>
- Laakso, M. & Multas, A.-M. (2023). European scholarly journals from small- and mid-size publishers: Mapping journals and public funding mechanisms. *Science and Public Policy*, 50(3), 445-456. <https://doi.org/10.1093/scipol/scac081>

-
- Laakso, M., Matthias, L. & Jahn, N. (2021). Open is not forever: A study of vanished open access journal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2(9), 1099–1112. <https://doi.org/10.48550/arXiv.2008.11933>
- Ma, L. (2023a). Information, platformized.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4(2), 273–282. <https://doi.org/10.1002/asi.24713>
- Ma, L. (2023b). The platformisation of scholarly information and how to fight it. *LIBER Quarterly: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33(1), 1–20. <https://doi.org/10.53377/lq.13561>
- McKercher, B. (2022). The rise and potential fall of some tourism, hospitality and events journals. *Annals of Tourism Research Empirical Insights*, 3(2), 100049. <https://doi.org/10.1016/j.annale.2022.100049>
- Solomon, D. J. & Björk, B. C. (2012). A study of open access journals using article processing charg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3(8), 1485–1495. <https://doi.org/10.1002/asi.22673>
- Suber, P. (2012). Ensuring open access for publicly funded research. *BMJ*, 345. <https://doi.org/10.1136/bmj.e5184>
- Waltham, M. (2010).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journals: a pilot study of eight US associations. *Learned Publishing*, 23(2), 136–143. <https://doi.org/10.1087/20100209>
- Willinsky, J. (2006). Why open access to research and scholarship?. *Journal of Neuroscience*, 26(36), 9078–9079. <https://doi.org/10.1523/JNEUROSCI.2891-06.2006>
- Yoon, J., Ku, H. & Chung, E. (2024). The road to sustainability: Examining key drivers in open access diamond journal publishing. *Learned Publishing*, 37(3), e1611. <https://doi.org/10.1002/leap.1611>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Yoon, JungWon. (2024). Global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cholarly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359–380. <https://doi.org/10.3743/KOSIM.2024.41.3.359>